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 곳곳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기술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2019.2.26.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SW산업팀
2019.1.3.



스마트팜



여자화장실 비상통화장치

자료: 서울시(2019), "서울 소공지하도상가, IoT 기술로 똑똑해진다...5개 기술 선보여", 2월 26일자 보도자료.

서울시, '스마트 지하도상가' 구축

서울시설공단이 서울 중구 소공지하도상가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지하도상가'로 조성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지하도상가에는 IoT 관련 국내 스타트업이 참여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섯 가지 기술을 접목하였다.

먼저 '긴급대피유도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지하도상가 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방재실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방재실은 시민들에게 대피안내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다. 여자화장실 세 곳에는 '범죄예방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화장실 내부에 긴급 상황 시 터치 한 번으로 방재실 직원과 전화가 연결되는 '비상통화장치'가, 화장실 칸마다 '비상벨'이 설치됐다. 출입구엔 비명소리처럼 일정 데시벨(db) 이상의 소리를 센서가 감지했을 때 방재실 직원과 즉시 통화하고, 비상상황임을 알리는 사이렌이 돌아가는 '이상음원 자동올림장치'도 새롭게 설치되었다. 지하의 공기를 정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도·습도 등 환경 설정과 식물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팜'도 조성되었다. 지하도 출입구 인근 천정에 방문객 수, 동선, 체류시간, 밀집도 등 유동인구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유동인구 측정시스템'을 통해서도 향후 상가 활성화와 시민 안전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모으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150여 개 상점과 취급 품목, 출입구, 편의시설, 명동 주변 명소 등을 4개 국어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안내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전북도, 전주한옥마을에 블록체인 기반

'전라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시스템' 적용 시도

전라북도가 관광객 편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라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주한옥마을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나 공공·편의시설 검색, 최신 정보 업데이트 등이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 시범사업으로 전주한옥마을 내에서 통용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 비콘)을 활용한 실시간 관광 정보 제공 서비스, 관광객 애로사항 등 피드백 서비스를 구현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신속하고 이용하기 쉽게 관광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관광수입의 도 외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져 현장 친화적인 관광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